

집안일까지 남녀 구별없는 '여성천국'

중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베이징=고광현 특파원·연착】

베이징 사회과학원에 근무하는 사회학 전공학자 진빙호(31)는 아내인 류우춘훤(30)가 며칠전에 끝난 아시아경기대회 운영요원으로 뿔뿔히 지난 석달 동안 딸 춘사(3)를 거의 혼자 돌보았다.

류우가 1주일에 이들 정도 집에 들어오고 나머지 날은 대회 준비 등으로 무척 바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빙호는 딸의 기저귀 빨래에서부터 탁아소 등·학교, 먹고 재우는 일까지 모두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지극히 자연스레 받아들었다.

중국남성의 아기기르기과 집안 일에 대한 참여는 이제 너무 보편화돼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아이는 어머니가 길러야 한다'라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라는 일에 대한 성별 분업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진빙호는 "모든 일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것"이라며 "이는 남녀 모두를 해방시키는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현상은 남성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흔하게 발견된다.

오후 5시가 되면 베이징의 거리는 퇴근과 함께 몇십만명의 남녀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몰고 오는 모습이 거리거리마다 물결을 이룬다.

남편과 부인 가운데 먼저 귀가하는 사람이 탁아소에 맡긴 아이를 찾아오고 저녁밥을 짓는 게 아주 당연하다.

퇴근하는 남자들이 자전거에 배추나 파 등 저녁거리를 장만해

신고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남성천국'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이나 가정·가사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한국여성에게는 이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이거나 '경이'로 보일 수밖에 없다.

흔히 '전족'이라는 상징물이 보여주듯이 과



베이징거리에서는 퇴근하면서 탁아소에서 어린이를 찾아가는 남성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찬거리를 사서 자전거 뒤에 싣기도 한다. <베이징=진천규 특파원>

79년 실시된 개방정책 영향... 전국인민대표 22%나 차지

평등 법적보장, 단체들 영향력 대단 모든여성에 직업알선·동일임금 지급

거에는 남성에 의해 가정안의 '애완동물'쯤으로 '과보호'를 받으며 일체의 인간적·사회적 활동을 제약받아야했던 중국여성이 오늘날 어떻게 이같은 억압의 울타리를 넘었을까?

그 첫 출발은 1949년 탄생한 사회주의 정권과 특히 1979년부터 실시한 개방정책에 크게 힘입었다고 중국 여성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베이징 민족학원 대학에서 '조선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선족 동포 김송숙(40) 교수는 "1949년

이전의 옛 중국에서의 여성들은 아무런 사회적 권리도 없이 남존여비의 가부장제적 억압 아래 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공화국 창건 이후 남녀평등을 못박은 법적 장치에 따라 차츰 여성에 대한 억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송 교수는 "중국 남성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남성은 남녀 평등의식이 몸에 배다"고 말하고 "아직도 봉건적 유제가 많이 눈에 띄는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유교적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조선족 남성에게

가부장제적 권위의식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주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실천 그리고 모든 여성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등의 완전고용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런 법적·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각종 여성단체 조직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여성조직인 '부녀연합회'는 여성대중조직으로서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 조직에서 배출된 여성지도자들이 중국인민대표대회 등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단체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

1954년의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여성대표는 11.9%였으나 지금은 7백여명에 가까운 대표가 참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여성취업은 자유롭다.

따라서 노인·학생·어린이 등과 애기르는 문제 등으로 집안에 있어야 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모든 여성이 어떤 부문에서든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하고 있다.

베이징 신성출판사가 펴낸 책 '오늘의 중국'에 따르면 1949년 전국에 걸쳐 여성 공장노동자가 60만명뿐이었으나 88년에는 5천36만명으로 늘어나 노동자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간호사·연구원·교수·교사 등 전문직 취업률도 급속히 늘어 현재는 전체 전문직요원 2천5백여만명 가운데 30%가 훨씬 넘는 9백여만명이 여성이다.

평등에 기초한 교육제도도 여성해방에 크게 이바지하는 밑바침이 되고 있다.

베이징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리치라이(22)는 "성별이나 민족·종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무교육(9년·초중학교)을 받게 돼 있어 젊은 사람(40대 이전) 가운데는 문맹자가 거의 없다"며 "1988년에는 1천45명의 여성박사가 나왔고 7만3백17명의 여성이 준박사(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생후 6개월 이상 된 갓난아이에서부터 취학전 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소·중·대형 탁아소와 유치원 등이 전국의 직장·주거 단위로 약 1백만 곳이나 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오늘날 중국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그 지위 향상이 기본적으로 애기르기와 가사노동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